

NEWS



해외 4대 PB 어워드 그랜드슬램 달성 기념
VIP 손님 초청 자산관리 콘서트

KEB하나은행은 12월 13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76층에 위치한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해외 4대 프라이빗 뱅킹 어워드 그랜드슬램 달성 기념 VIP 초청 자산관리 콘서트를 개최했다. 세계적인 금융전문매체 더 banker誌·PWM誌가 영국 런던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9회 Global Private Banking Awards 2017에서 KEB하나은행이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수상하면서 다시 한 번 자산관리의 명가임을 입증했다. 이로써 KEB하나은행은 유로머니誌·글로벌파이낸스誌·PBI誌 등 해외 4대 PB어워드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해외 4대 PB어워드 그랜드 달성 기념 VIP 손님 초청 자산관리 콘서트는 200여 명의 VIP 손님과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KEB하나은행 홍보모델인 배우 안성기, 대한축구협회 홍보모전무, 2017 US여자오픈 우승자인 박성현 선수 등의

축하영상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박종영 하나UBS자산운용 부사장이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정태 회장은 "KEB하나은행이 그랜드슬램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손님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행사는 '자산관리 세미나'와 '문화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자산관리 세미나에서는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이 2018년 금융시장 전망을, 광범열 KEB하나은행 투자상품서비스부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2018년 투자상품 전략을 발표했다. 양식 코스의 오찬을 즐긴 후, 행운권 추첨이 이어졌다. 손님행복 콘서트 공연에서는 코야모리츠 앙상블의 연주에 맞춰 테너 류정필,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정규남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콘서트는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 애잔한 분위기와 연말연시 분위기를 오가며 연출됐다. KEB하나은행은 손님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산관리 외에 라이프스타일까지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자산관리 종가(宗家)
영업1부PB센터 Grand open

KEB하나은행은 지난 12월 14일 영업1부PB센터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출범식은 아트뱅크를 선도하는 영업1부PB센터를 함께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첫 운영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2003년 런던에서 설립한 현대미술기획사무소 슝 프로젝트 대표인 이지윤 박사의 설명에 따라 영업1부PB센터 구축구석 설치된 작품들을 함께 관람했다. 이번엔 영업1부PB센터에 설치된 작품들은 손님들과 문화적 감성을 공유하고자 KEB하나은행이 소장하고 있거나 새롭게 선보이는 특별전으로 준비됐다. 영업1부PB센터 중앙에는 이스라엘 출신 작가인 자독 벤 데이비드의 작품이 설치됐다. 이 작품은 영업1부PB센터 특별전을 통해 국내에는 처음으로 소개됐다. 작가는 유럽, 미국, 아시아, 호주, 남극을 여행



하며 직접 찍은 사진에서 포착된 다양한 문화권의 인물들을 수천 개의 납작한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으로 제작하여 한 자리에 설치했다. 세미나룸에는 살바도르 달리, 로버트 인디애나, 김수자, 김구림, 정상화, 토드 노스턴, 니키 드 생팔, 유근택, 유현미, 홍렌, 로메로 브리토, 배경우 등의 작품이 걸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작가 자독 벤 데이비드가 참석해 자신의 작품을 직접 손님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PB센터를 돌아본 후 주요 내빈들과 함께 테이블링과 케이크 커팅 순서가 마련됐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KEB하나은행이 태동할 무렵부터 영업1부PB센터가 있었다"며 "소중한 내빈 여러분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KEB하나은행의 명예를 걸고 세심한 자산관리를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님들은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지만 이렇게 감성을 채우는 행사는 처음"이라며 "자산관리 외에도 손님과 감성을 공유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KEB하나은행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금융을 넘어 가치 중심 서비스까지 아낌없이 지원하며 자산관리 종가(宗家)의 40여 년 명성을 이어갈 것이다.

NEWS



문화와 금융의 만남 방배서래 골드클럽 Grand open

☛ 방배서래 골드클럽이 '문화와 금융의 만남'이란 주제로 새 단장을 마쳤다. 이에 지난 12월 20일 방배서래 골드클럽에서 장경훈 개인영업그룹 부행장, 김기석 서초영업본부 본부장, 하나금융투자 전병국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식이 거행됐다. 개점식은 방배서래 골드클럽 소개, 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간배 제의, 지정 투어 순서로 진행됐다. 장정욱 센터장은 "방배서래 골드클럽의 콘셉트는 '솔깃'이라며 솔깃이 지닌 의미처럼 '손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손님을 끌어들이는 매력 넘치는 골드클럽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하나금융투자 와 한 공간에 자리한 만큼 성공적인 협업을 이끌어 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방배서래 골드클럽은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오프라인 점포를 찾는 손님들이 줄어드는 상황을 타계하고자 KEB하나



행이 추진 중인 컬처 뱅크 사업의 일환이다. 컬처 뱅크에는 은행 영업시간 외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손님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찾고 싶은 지역 명소가 만들겠다는 KEB하나은행의 의지가 담겨 있다. 기존 은행은 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공간이었다면, 컬처 뱅크는 지역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비금융 콘텐츠 영업점 공간의 융합인 셈이다. 이에 서래방배 골드클럽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 국내 유명 공예 작가와 주목 받는 신진 작가의 공예 작품을 전시 또는 판매하는 공간이 한 자리에 마련돼 있다. 이번 개점식에서도 전문 큐레이터의 소개로 방배서래 골드클럽을 둘러보는 순서가 마련돼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현재 방배서래 골드클럽에는 2017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한 양지운 작가와 여러 무형문화재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앞으로 KEB하나은행은 컬처 뱅크 1호점인 방배서래 골드클럽을 시작으로 스타일, 가드닝, 여행, 책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가 적용된 컬처 뱅크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후원 기념

와인&치맥파티

☛ KEB하나은행은 시골벽적인 도심 속 인파를 피해 낭만적인 프라이빗 파티를 계획했다. 12월 8일 평창동 골드클럽과 올림픽선수촌PB센터에서는 로맨틱한 밤을 위한 와인&치맥파티가 개최됐다. KEB하나은행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 공식 후원 은행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다방면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파티 역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는 마음을 손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기획됐다. 치맥파티가 진행된 올림픽선수촌PB센터에서는 각 룸마다 상담테이블에 바삭하게 익힌 치킨, 시원한 맥주, 직원들이 직접 구운 전 등이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평창동 골드클럽에는 다양한 와인과 핑거 푸드들이 준비돼 사랑방 역할을 특특히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님들은 삼삼오오 모여 한 해 동안 수고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새해에 대한 덕담을 나눴다.

평소 평창동 골드클럽과 올림픽선수촌PB센터는 한 달에 한 번 와인데이와 치맥데이를 개최해 손님들의 정을 쌓고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와 더불어 특별했던 이유는 행운권 추첨과 함께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KEB하나은행의 관계자는 "소중한 사람들과 집에서 단란하게 휴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가족과 같은 손님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로맨틱한 밤을 완성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고 말했다.



갤러리투어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展

☛ KEB하나은행은 1월 10-12일 3일간 예술의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展에 VIP 손님을 초청했다. 이번 갤러리투어는 2016년부터 작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작고 50주년을 기념하기 기획된 전시로, 그의 생애를 조망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자코메티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주인공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술가 중의 예술가"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는 작가다. 생명의 핵심을 인간의 시선이라고 생각한 작가는 사람의 두상 작업에 평생을 바쳤다. 현대미술과 철학에 커다란 영향을 준 작가이기도 하지만, 작품평가액 또한 상상초월한 금액으로 미술경매에서 새로운 경신을 이끌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걸어가는 사람'이란 작품은 2010년 마지막 경매에서 1,200억원으로 낙찰되며, 이전 최고 경매가인 피카소의 '파이프를 든 소년'을 누르고 세계 경매 신기록을 세웠다. 전시 중인 '걸어가는 사람(워킹맨)' 석고 원본은 작품 실거래가의 3배 이상으로, 책정가만 3,800억원에 이

른다. 죽기 전 마지막 작품 '로타르 좌상' 또한 3,000억원이 훌쩍 넘어 사상최대 작품평가액을 기록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초기 시절부터 말기의 작품 120여 점 이상을 조명한다. 그의 고향 스위스 탐파에 있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보낸 마지막 기간(1960-1965) 동안 그의 예술적 성취 과정을 모두 보여준다. 그의 대표작인 '걸어가는 사람'과 죽기 전 작품인 '로타르 좌상', 생애 마지막 페인팅(자크 뒤팡의 초상화)은 전부 이번 전시의 주요 작품이다. 조각 작품 외에도 인물 드로잉, 페인팅, 사진, 원고, 기타 보관 자료와 함께 전시돼 널리 알려진 자코메티 작품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갤러리투어에 참여한 한 손님은 "도슨트를 통해 작품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작품에 담긴 자코메티의 삶을 함께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고 여운도 길게 남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손님과 함께 예술적 감흥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가질 계획이다.